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에 대한 고찰

-평생교육원 영한 통번역과정을 중심으로-

원호혁·김형엽*

고려대학교

Won, Ho Hyeuk and Kim, Hyoung Yub.** (2017).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in Lifelong Education: Focused on Korean-English T&I Program. This paper presents the role of lifelong education between the translation & interpreting department and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studies, department teaches students basic information about translation and languages. In addition, graduate school rears experts and researcher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role for lifelong education,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lifelong education in translation & interpreting as a guide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ranslation but do not graduate translation & interpreting department. Also, this paper emphasizes John Dewey(1938) and Lengrand(1980)'s idea of lifelong education and suggests the evaluation tool for translation & interpreting program established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Korea University)

keywords: translation & interpreting studies, translation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university foreign studies, educational evaluation

1. 서론

한국에서 통번역교육이 전문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통번역대학원이 설립되면서였다. 1990년대 이후 사람들이 세계화의 추세를 인식하였고 그에 맞추기 위한 영어 등 외국어의 능력 함양에 대한 관심과 해당 분야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이 통번역대학원의 진흥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1) 그 후 2000년대 들어 이화여대, 제주대, 선문대, 한동대 등이 통번역대학원 설립의 뒤를 이었고 고려대, 동국대, 중앙대 등의 국제대학원에서 통번역 과정이 신설되었다.2) 대학원 위주의 교육과정에서의 통번역 상황은 우선 석사 과정의 학생은

* 교신저자

** Corresponding author

1) 박경희(2007). 국가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8.

실무적인 번역을 연습하며, 박사 과정의 학생은 실무를 넘어서 이론을 다지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일단 학위를 마치게 되면 수료자는 전문 번역가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학부는 학생들에게 번역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며 전문 번역가의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은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

2000년대 후반부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증진됨에 따라서, 대학교들이 통번역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학부, 대학원 외에 평생교육에서도 번역 교육이 행해지게 되었다. 평생교육원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며 은퇴 뒤의 재입사, 남은 여생의 여가시간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⁴⁾ 통역, 번역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강자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영어번역사 자격증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은 아직 학부와 대학원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 그 외 다른 분야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가 관련 분야를 수강했다는 사실을 보증해 줄 뿐 확실한 실효성을 보장하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평생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것만으로 통번역 관련 자격증이 수여된다면 그 과정에의 점검은 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안도 아직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통번역대학원의 통번역교육과 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부의 통번역학과에서 각자 수행해야 될 역할의 차이는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사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평생교육의 역사와 이념, 통번역 교육 방법을 조망할 것이며 각 학교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번역 평생교육 목표를 관찰하고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번역 방법을 통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보이고 나아갈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시키려고 한다.

첫째, 평생교육원과 대학원, 학부 세 다른 교육기관의 통번역교육 운영 현황과 역할을 밝히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교육학자들의 주장과 번역 교육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재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둘째, 미래에 평생교육과 대학원과 학부가 통번역에 있어서 바르게 수행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두려고 한다.

2) 김진아 외(2014)가 작성한 “한국통번역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334p에 나오는 표를 참조했다.

3) 박경희(2007). 국가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31.

4) 조희정(2017). 평생교육에서 영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지도방안, 2.

2.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정의들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그 후에는 통번역대학원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장에서 이어질 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2.1. 평생교육원

1940에서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은 그 개념이 명확히 자리잡기 이전부터 사실상 존재해왔다.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혼란이 끝난 뒤였는데 그 때 평생교육은 기초사회교육, 성인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졌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1970년 유네스코(UNESCO)가 ‘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공적으로 채택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의 민주화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기 시작했고,⁵⁾ 유네스코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한국의 김승한 등 여러 학자들이 평생교육이라 번역하면서 평생교육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⁶⁾ 1980년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한다”라는 조문이 포함되며 한국에서 평생교육 용어가 확산되었으며,⁷⁾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1세기가 되면서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생겨났으며, 세계화·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성인과 노년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학교 정규교육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게 되었다.⁸⁾ 그로 인해 평생교육이 부상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의 인기로 인해 대학들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도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교육을 재차 조망하려고 한다.

2.1.1. 평생교육의 이념과 정의

개념의 설정 및 시행의 측면에서 본격적인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 평생교육의 철학적 이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바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연구조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념을 존 듀이(John Dewey)의

5)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50.

6) 김승한(1966)의 ‘외국의 성인교육과 시민교육의 실태’에서 ‘lifelong education’이 ‘평생교육’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7) 김진화 외(201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용어의 분리적 탐구와 학문적 개념화, 56.

8) 조희정(2017). 평생교육에서 영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지도방안, 2-9.

사상에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듀이는 학교에서, 교실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혹독하게 비판하였으며 학교의 커리큘럼이 학생의 활동(경험)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해야 된다고 보았다.⁹⁾ 듀이(1938: 35)의 교육 이념은 “경험의 지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평생을 사는 동안의 경험(continuity of experience)’이라 볼 수 있다. 듀이(1938: 37)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건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의 이념과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보조 기관을 바로 평생교육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인구의 폭등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때문에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연령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사람들은 기존의 학교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형식교육을 넘어서 추가적인 비형식교육을 추구하게 되었다. 비형식교육은 교실, 교사, 학생 등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의 인증을 받지 않는 사설기관, 연수원에서의 교육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¹⁰⁾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자 중심적이며 학교 중심적이지만, 평생교육원의 교육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¹¹⁾¹²⁾ 즉 어른들은 평생교육원에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게다가 평생교육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며 이는 매우 평등한 교육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로 학부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을 공부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해 논문을 준비하는 것에는 시간적·물질적인 한계점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형식교육에 기반을 둔 평생교육이야말로 이미 정규교육을 마친 성인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에서 청·장년층은 빠른 퇴직 이후에 연이은 취업을 목표로 한 자격증과 실무교육을 필요로 하며, 노년들의 경우는 남은 긴 여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교양교육을 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될 표 1은 평생교육에서의 연령대별 비율과 선호도를 보여준다.¹³⁾ 본 연구에서도 이처럼 평생교육을 행하는 주체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중점을 둘 것이고, 따라

9) 차갑부(2012). 평생교육론, 21.

10)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24.

11) 그러나 학부와 통변역대학원의 교수 방향도 최근 학습자 중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송연석(2016:48)은 대학원 통변역교육은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과서나 강의 대신 교수자 및 학습자 간의 토론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토론 중심의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에 가까운 것이다.

12)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39-40.

13) 아래 표에서는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은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김진화(2012:69-70)의 연구에 의하면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의 수요자, 교육을 받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용어이고 평생교육은 교육을 행하는 제도적 기관, 교육의 주체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서 평생학습보다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에 좀더 중점을 맞출 것이다.

표 1. 평생학습 참여율¹⁴⁾

유형별(1)	구분별(1)	구분별(2)	2013	2014	2015
전체 참여율	연령	25~34세	35.9	43.5	48.0
		35~44세	31.9	38.9	42.2
		45~54세	26.3	33.1	37.3
		55~64세	25.4	29.2	32.1
형식교육	연령	25~34세	9.0	7.6	9.1
		35~44세	3.3	1.9	2.6
		45~54세	1.5	1.8	1.3
		55~64세	0.7	0.6	0.5
비형식교육	연령	25~34세	30.8	39.4	44.2
		35~44세	29.9	38.2	41.3
		45~54세	25.3	32.3	36.7
		55~64세	25.1	28.9	31.8
직업관련	연령	25~34세	21.2	31.1	34.1
		35~44세	18.3	27.6	29.8
		45~54세	13.2	23.2	25.7
		55~64세	11.2	16.6	18.0

표 1에서 우리는 유형별 전체 참여율에서 표 내에 전 연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각각 10% 가량 증가했으며 45~64세에 비해서 25~44세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직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을 마치기 전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평생교육은 학문의 발달 시간을 보았을 때 오래된 학문이 아니며, 때문에 평생교육의 대상과 목적 등에 대한 주장은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평생교육의 정의를 엄격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랑그랑드(Lengrand)은 평생교육은 개인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수직적·시간적 차원의 교육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수평적·공간적 차원의 교육을 통합한 것이라 말하며 평생교육에 삶을 구성하는 공시적

14)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http://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334&confmNo=334009&kosisYn=Y>

축과 통시적 축을 모두 포함해서 정의를 내렸다.¹⁵⁾ 그리고 김종서는 평생교육을 “삶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한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 사회, 학교 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사회를 건설해 최대한 자아실현과 사회발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그의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축에 평생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발전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 정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평생교육법 제 2 조에서 평생교육을 정의 내리기를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연령과 성별 등의 요소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정규교육 외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성인 뿐 아니라 대학생 등 모든 사람이 수강할 수 있다.¹⁷⁾ 이들의 정의를 통해 본 저자가 평생교육의 정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은 정규교육 외에 비정규교육까지 포함하며(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걸친 교육이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적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행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 자체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평생교육원에서의 번역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3장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서 다루어 질 것이다.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원의 역사와 평생교육원에서의 통번역교육을 중심으로 향후의 논지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2.1.2.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 현황

평생교육원은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생겨나며 활성화 되었다. 교육통계연구센터가 2015년에 조사한 평생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95% 이상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¹⁸⁾ 평생교육원은 지자체들과 연합하기도 하며 시민을 성장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학점은행제과정을 개설해 고등 교육을 장려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K대학교 평

15)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30.

16) 김종서(2000). 평생교육개론, 2.

17) 물론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시험을 통해 수강생을 선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도 이에 포함된다.

18) <http://kess.kedi.re.kr/index>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의 목표이며 다른 대학들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표 2. K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목표¹⁹⁾

1	교내 구성원 및 교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
2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한 교육사업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점은행제과정 교육사업
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 (무료공개강좌 및 방과 후 학교)
5	이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사업
6	원생 자치 활동 및 해외연수교육 사업 실시
7	평생교육 관련 교재개발·편찬 및 교과과정 개발 연구사업
8	평생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행사 개최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을 교과과정으로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이 아직 성장기에 불과해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가 아직 많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대학에서 개설한 평생교육 강의만을 따지면 수가 더 크게 줄어든다. 평생교육원에서의 통번역교육은 대표적으로는 H대학교가 있다. H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2013년에 개강을 했으며 2014년 6월에 통번역기초과정 1기를 개강하게 된다.²⁰⁾ 그리고 ‘통번역기초과정’ 프로그램은 2015년 1월 2기, 7월 3기, 2016년 1월에 4기가 개설되었으나 7월에는 프로그램을 ‘비즈니스통번역기초과정’ 5기로 개편하게 된다. 그러나 6기 이후에 H대학교는 다시 ‘통번역기초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H대학교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에서 교수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8개로 H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이 1980년 이후 개설해 운영하는 8개의 언어 분야와 같다. ‘통번역기초과정’은 말하기, 작문연습, 기초통역, 기초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통번역기초과정’에서는 말하기와 작문연습이 비즈니스에서의 토론과 발표와 회화에 필요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과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글쓰기에 대비한 비즈니스 작문으로 바뀌었다. 이는 수요자가 기존의 발표를 위한 정도의 교육으로서 영어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 보다는 실생활과 업무에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19) https://edulife.korea.ac.kr/?r=sample_site&c=260/265

20) <http://edulife.hufs.ac.kr/>

21) 그러나 2017년 초 H대학교는 다시 ‘비즈니스통번역기초과정’을 ‘통번역기초과정’으로 재편한 것은 다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무수한 비즈니스 통역, 비즈니스 번역 과정이 개설된 상황에서

이러한 H대학교의 변화는 Y대학교와 D대학교에서 국제 통역번역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통번역자격증(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이하 ITT) 1급을 수여하는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이 Y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D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15년 8월에 시작된 것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TT는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통역 및 번역시험²²⁾으로 2010년에 시작되어 2016년 11월 17일 기점으로 24회 시험까지 치러졌다. ITT는 법무부에서 인정받은 시험으로 약 800여개 기업과 대학교에서 채용, 승진, 인사 자료로 사용된다. ITT는 통번역으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하며 번역으로는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아랍어 등 다른 많은 언어들도 지원한다. 시험의 분류는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professional grade’와 무역, 상담, 홍보, 정보, 광고 관련 기업직무를 다루는 ‘business grade’로 구분이 된다. Y대학교와 D대학교는 시험 없이 과정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ITT business grade 1급을 수여하는 것에 강점이 있다. 다음은 Y대학교에서 제시한 평생교육원의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영어) 강의계획서이다. D대학교에서 통번역과정(영어)²³⁾은 내용상 큰 차이점이 없으므로 링크만 제시하려 한다.

표 3. Y대학교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 강의계획서²⁴⁾

주차	교육내용
1	통역 : 직원미팅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자기 소개하기 번역 : 자료요청, 정보안내 자료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2	통역 : 미팅 통역 번역 : 주문 및 주문처리 자료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3	통역 : 프레젠테이션 통역 번역 : 프레젠테이션 문서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4	통역 : 제품상담 통역 번역 : 판촉활동 자료 번역(외국어역, 한국어역)
5	통역 : 보고 통역 번역 : 보고서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6	통역 : 협상 통역 번역 : 계약서, 협약서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7	통역 : 마케팅 통역 번역 : 마케팅 자료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8	통역 : 공장관리, 조립라인, 품질관리 통역

또다시 차별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22) <http://www.itt.or.kr/index.htm>

23) http://edulife.dongguk.edu/bbs/board.php?bo_table=sub2_2_a&wr_id=267

24) https://go.yonsei.ac.kr:450/yonsei/3000/view.php?course_idx=3989&courseid=5308&nyear=2017&unit_idx=1&mode=view&staffcourse=

	번역 : 매뉴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9	통역 : 투자상담 통역(은행, 회계, 세금) 번역 : 투자 계획서 번역(회계자료, 세금자료, 급여자료) (외국어역, 한국어역)
10	통역 : 전화 통역(일반 사무) 번역 : 일반 사무 이메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1	통역 : 회사 소개 통역 번역 : 회사 소개 브로슈어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2	통역 : 프로젝트 통역 번역 : 프로젝트 매뉴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3	통역 : 공장 견학 통역 번역 : 공장 운영 매뉴얼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4	통역 : 제품 홍보 통역 번역 : 제품 홍보 브로슈어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15	통역 : 거래 계약 통역 번역 : 약정서, 합의서 번역 (외국어역, 한국어역)

Y대학교에서는 강좌의 이름에서도 통번역 과정의 목표가 비즈니스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D대학교에서는 강의의 이름을 통번역이라 명시하며 비즈니스에 목표를 두고 교수를 하고 있었다. 또한 H대학교에서 개설했었던 비즈니스통번역과정 역시 강의계획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번역을 실무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 이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취업 실무 교육을 띄는 통번역교육을 박선희(2016: 87-90)는 <실무번역>으로 정의하며 <실무번역>이 언어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번역>과 전문적인 번역가로 거듭나는 통번역대학원의 <전문번역>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들을 통번역 기술을 응용해 처리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은 <실무번역> 중심적이라 보는 것이 가깝다.

또한, I대학교에서도 ‘비즈니스통번역 전문가과정’이 8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여기서도 실무 중심의 통번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과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²⁵⁾ 교육기간은 평생교육 이념에서 중시되는 점 중 하나인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 여부, 교육비용은 비용 측면에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각 평생교육원에서 단기 특강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었으나 평등한 교육과는 모든 대학이 거리가 있었다.

25) Y대학교와 D대학교가 보이는 양상은 비슷하므로 둘은 묶어서 분류하였다. 둘로 나뉜 경우 위 칸이 Y대학교, 아래칸이 D대학교이다.

표 4. H대학교, Y대학교&D대학교, I대학교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 비교²⁶⁾

특징	H대학교	Y대학교&D대학교	I대학교
유사점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		
명칭	통번역기초과정 -> 비즈니스통번역과정 (5,6기) ->통번역기초과정 (7기 이후)	비즈니스 통번역전문가과정(영어) 통번역과정(영어)	비즈니스통번역 전문가과정
교수내용	기초통역, 기초번역, 말하기, 작문	비즈니스통역, 비즈니스번역	
대상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교육기간	15주(90시간)	17주(163시간) 19주(약 145시간) ²⁷⁾ 20주(100시간)	15주(135시간)
교육비용	250만원	300만원 / 280만원	200만원
면접, 시험	○ (진단테스트)	○ (진단테스트)	○ (어학자격증 or 면접)
특이사항	한 때 비즈니스통번역 과정으로 바뀌었으나 다시 기초 통역, 번역을 교수하게 됨	수료 시 ITTI급 수여	호주 New South Wales University 통번역학과 편입 과목 면제

2.2. 통번역 정규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통번역 정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와 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이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 교수 과정을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과 비교하고 후에 학부, 대학원, 평생교육원의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자들이 제안한 통번역능력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담론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개설된 강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²⁸⁾

26) I대학교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했다.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8151057>

27) Y대학교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은 주중반과 주말반 두 강의를 있다. 각주가 달린 것은 주말반이다.

28) 하지만 본고의 중심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에 있으므로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통번역교육에 대한 분석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2.1. 통번역능력 평가기준

통번역과정의 번역교육 평가와 그를 응용한 평가기준 제작을 위해서 본 저자는 통번역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인용하여 제시하려 한다. PACTE(2000)는 통번역능력의 정의를 총 여섯 범주로 구성하고 있다. PACTE는 전문 통·번역가는 두 개 이상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며 상식이나 전문지식 등의 언어 외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서와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겸비하며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 등의 심리생리학적 능력, 번역 목표 언어인 출발어를 번역 후의 언어인 도착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피드백 등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Kelly(2005: 32-33)는 두 번째 범주인 언어 외적 능력을 문화적 지식과 주제에 대한 지식으로 나눈 7가지 통번역능력 범주를 제시한다. 또한, 김련희(2002: 95-98)는 번역능력이 언어능력, 보완적 인지요소, 번역 방법론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번역사는 출발어 텍스트를 이 세 가지 능력을 이용해 도착어 텍스트로 가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언어능력에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법지식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완적 인지요소는 문맥적 이해능력, 배경지식, 전문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번역 방법론은 실제로 행하는 번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언어적·인지적 전략을 의미한다.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을 통번역교육에서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통번역 교수 기관들은 이러한 주안점들을 목표로 삼고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통번역능력이 언어적 지식이나 통번역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인지요소 등의 수많은 범주를 아우르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통번역능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2.2. 통번역 정규교육

통번역 학부가 내세우는 교육목표는 통번역 전문가 양성으로 이는 통번역대학원의 목표와 매우 유사하다.²⁹⁾ 또한, 박선희(2016: 89)는 학부의 4년 교육과정 중 1~2학년은 언어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번역> 교육, 그리고 3~4학년은 취업 실무 성격을 띠는 <실무번역>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 교육과정을 통해 번역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전문번역> 학습을 위해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통번역학 학부과정은 이처럼 <학습번역>과 <실무번역> 교육을 제공하며 <전문번역>에 대해서 미리 탐색하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학부 수준의 지식으로 실무적인 번역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학부의 4년은 통번역대학원 진학생의 학습 시간 보다는 짧은 것이 분명하며³⁰⁾ 교육의 깊이에서도 학부와 대학

29) 이항(2016). 학부 번역교육의 목표, 120-121.

30) 물론 다른 전공에서 통번역대학원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하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원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김련희(2011: 31)는 학부 차원에서 통번역교육은 교양 과정에서도 가능하나 직업 준비 수준의 통번역 지식은 학부에서는 갖추기 힘들며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구글 답마인드의 발달로 인해 일정 수준의 번역은 기계번역으로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부에서의 통번역교육은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며 아직 학부에서 통번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학부는 통번역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김련희(2011: 38-40)는 학부에서의 통번역교육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번역의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통번역을 직업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과 동떨어진 것이다. 김련희는 이를 ‘기본 소양’으로서의 번역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을 목표로 한, 언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교육은 통번역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관점일 것이다. 이항(2016: 130) 또한 학부 통번역과정의 목표를 실무적인 번역으로 보는 것은 방향성 없이 통번역대학원의 목표를 학부로 가져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언어적 능력의 향상과 타 문화 교육, 번역가로서의 윤리와 자신감 습득 등 번역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시키고 학생들을 전문번역가로서의 첫걸음 단계로 이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번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해 실전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번역대학원의 이념은 학교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공통적인 목표는 전문 통번역사와 학문 연구자 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번역학의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번역과 통역의 직업군으로 뛰어들거나 박사과정에서 통번역학의 학문을 연구하기도 한다. 통번역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또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방송국, 신문사, 대사관 등 많은 분야에 진출하기도 한다. 통번역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 실무를 다지는 것이고, 박사과정은 번역의 학문적 연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번역대학원은 학부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학부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평가와 개선방안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역사,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진 번역교육의 현황, 그리고 통번역정규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통번역대학원과 평생교육원

의 통번역교육을 비교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과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평생교육원 통번역교육의 문제점

통번역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평생교육의 이념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처음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UNESCO 협의에서 등장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라그랑드(1980)는 사람이 교육을 통하여 계속해서 발전하며 자기교육,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평생 교육은 다시 말해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는 물론 존 듀이(1938:17-23)가 주장한 학교에서의 틀에 박힌 교육이 유명무실해졌으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통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과 부합한다. 또한, 라그랑드의 저서에서는 교육은 학위나 졸업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런 학위나 졸업장은 사람의 기억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라 이야기한다. 교육은 과거의 기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며 그 두 가지 수단이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라그랑드의 주장이다. 즉, 평생교육의 본질은 학교의 이름이나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자격증이 아닌 자기발전과 끝없는 교육에서 오는 만족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평생교육의 키워드 두 개는 영구적인 교육과 자기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생교육은 30년도 안된 시간 속에서 평생교육의 원래 목적과 달라지고 말았다. 평생교육을 마친 후에 얻는 것이 유명 대학의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하나의 스펙과 다를 것이 없는 수료증이라면 물론 문제가 될 것이며, 거기에 평생교육을 마치면 자격증까지 나온다면 더욱더 그것은 평생교육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평생교육원이 다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같은 문제에 갇혀버리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모든 교육이 근본적으로 치하는, 항상 문제가 되는 질(quality)의 문제가 있다. 평생교육의 발전 및 성장으로 사람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평생교육 기관들과 프로그램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통번역 평생교육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통번역 그 자체도 굉장히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의 통번역교육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생교육에서 교양을 중시하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 실무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통번역의 전문성이라는 토대마저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번역 자체를 하나의 기술이자 수단으로서 수강하고, 수료를 마친 후에 사회에 새로이 진출하고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즈니스라는 목적으로 통번역을 학

습할 때에 그 기술은 단지 경영에서의 수단이 되기가 쉽다. 또한, 그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프로그램으로는 질적인 만족감을 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통번역 학부, 통번역대학원 보다 프레젠테이션 실습 등의 실전적인 수준만의 통번역을 교수하며 교육 시간 또한 한 학기에 교육을 받는 200시간 가량의 번역공부로 학부에서 요구하는 4년의 통번역교육과 2년의 대학원 기간, 5년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이론과 실무의 간극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번역은 후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의 붕괴 같은 이유로 인한 사람들의 이주를 통해 다양하게 된 언어, 난해해진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다시 이심전심으로 이끌게 하는 치열한 과정이다. 아직 기계번역도 100%의 정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수많은 번역 기법을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는 작금이다. 소쉬르는 현실 세계에 행해지는 기호들인 ‘기표’와 기호의 그릇들에 담겨있는 ‘기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언어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속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 ‘보편 문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현재 언어학의 주류를 선도하고 있다. 언어의 기계적인 관점에서 김형엽(2015)에서는 번역 교육을 ‘귀추-귀납-연역’의 방법으로 구분하며 번역 학습을 위해서는 원천언어 교육, 목표언어 학습, 번역실습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학계의 경향을 봤을 때, 교육학은 과거에는 문법위주의 교수법이 유행을 했었으나 그 경향은 의사소통 위주의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으로 옮겨갔고 이를 각각 Focus on Forms(형태 위주의 교수법)과 Focus on Meaning(의미 위주의 교수법)으로 지칭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형태와 의미 모두를 중시하며 교수를 하는 Focus on Form(형태·의미 위주의 교수법)이 유행을 하고 있다.³¹⁾ 이는 통번역에서 실무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태, 기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이론만을 중시하는 교육방법과 실무만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극복하는 절충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는 둘이 개별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둘 중 하나만 이루어 저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개념과 방식들을 통번역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통번역교육 역시 번역과 통역 연습에 관련된 강의뿐만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강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번역 능력에는 대조언어학적 분석 능력 등 언어학적 지식 외에도 윤리관, 실용적 소양 등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다. 2장에서 알아보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은 대부분이 실전, 특히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와 상황에 맞추어져 있을 뿐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나 문화의 차이의 이해 등에 대한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31) 조희정(2017)의 ‘평생교육에서 영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지도방안’을 참고하였다.

문화의 차이로 가장 많이 드는 예로는 이누이트 언어의 경우 눈을 호칭하는 단어가 50개 가량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누이트의 삶에는 그 날의 기후에 따른 눈의 상태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문화와 관련된 차이에서 기인하는 번역의 차이는 난제로 남아있다. 번역가의 윤리 역시 한 번역가의 실수가 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그들의 문체나 오역이 다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막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지는 기업 상황에서의 실무에만 집중하는 통번역 강의의 이름은 ‘비즈니스 영어’와 같은 식으로만 정하여도 만무할 것이라 사료된다.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을 가르치며 언어와 문화, 번역가의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번역 연습만을 하는 것은 번역의 질과 번역의 고고함을 저하하며 번역을 하나의 언어적 도구에 지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통번역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평생교육의 원래 이념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번역 교육의 방식 두 가지를 제기할 수 있었다.

3.2. 해결방안

본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통번역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번역을 교수하는 학부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박선희(2013)가 주장했듯이 학부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언어학습의 장과 어느 정도 실무적인 번역을 수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통번역대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학생들은 통역가나 번역가가 되기도 하며, 각 과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습득한 뒤 기업에 입사하거나 국제기구에 들어가기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학부는 통번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수, 응용 분야에 대한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년의 학부 실무 지식은 6년 이상 통번역을 수련해 온 통번역대학원의 실무지식에 비해 부족하다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련희(2011)와 이향(2016)은 학부의 통번역학과의 번역의 이해를 돕고 언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기본 소양’ 정도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번역대학원의 경우에 석사과정의 이수를 마친 사람은 통번역 자격증을 받으며 이를 통해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학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연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석사과정을 거쳐 학부생들처럼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의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이수를 마친 사람은 통번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

통번역 학부는 번역의 입문과 언어 습득의 교양 수준의 교수를 행하며, 통번역대학원은 번역 실무자와 연구자를 배출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지는 통번역교육은 아직 입지와 존재 의미가 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실

무 번역을 위해서는 2년 학부 시간(1, 2학년은 <학습번역 >)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D대학교와 Y대학교의 실무번역을 교수하는 시간은 그에 비해서 한 학기에서 길어야 일 년으로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에서 통번역교육을 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그 존재가 학교에 수익이 되는, 기업인에게 하나의 경쟁 요소에 지나지 않는 위치로 존재한다면 학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은 기존의 교육이 다른 통번역의 무수한 분야 속에서 기업에서만 활용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점과 각 대학교가 불확실한 강의계획을 내세우며 자격증을 배부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있다. D대학교에서 과정을 이름을 ‘통번역과정’이라 내세우며 비즈니스의 실무 번역만을 교수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통번역의 조예가 없는 사람들에게 통번역의 분야가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해 통번역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승(2012:184)은 학부 번역의 흐름 중 하나로 언어 능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은 통번역 활동의 기본 토대와 특성, 역사적 유래와 현재, 방법론 등의 이론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론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문은 이론 교육에 그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번역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평생교육원의 이념에 적합한 통번역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교육 교수가 맞을 것이며 이는 기존에 H대학교에서 운영했던 ‘통번역기초과정’ 프로그램이 더 평생교육의 이념에 적합할 것이다. 물론, H대학교에서 또한 통번역 기술에 초점을 뒀 다른 통번역을 위한 보완적 인지요소 지식을 교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통번역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원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하는 시설과 개인,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관 및 기타 평생교육 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³²⁾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점점 초기의 평생교육에서 주장했던 교육이념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의 이념인 영구적인 교육과 개인과 발전과는 괴리감이 있게, 대학교의 수익구조를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은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유지하기 힘든 장소가 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또한 기존에 존 듀이가 반대하던 형식화되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니는 학교와 다름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원이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교육기관인 것에 더하여 영구적 교육과

32) 최규수(2011). 평생교육기관 이미지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 8.

개인의 발전이 행해지는 공간이라는 평생교육의 기존의 이념을 드러내야 될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평생교육원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원초적인 이념인 영구적인, 평등한 교육이 행해지며 그로 인해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정의가 합당해지기 위해서 추후 다른 학교에서 생겨날, 혹은 기존에 개설된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의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수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의 지원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저가로 통번역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줘야 될 것이며 여기에서 학교는 사익에 눈이 멀어 교육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본 저자가 주장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통번역교육은 학부의 ‘기본 소양’ 수준이라 본다. 짧은 시간으로 수많은 경력이 쌓인 통번역대학원의 연구자들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통번역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해 기본 언어학습과 통번역의 기본적인 이해, 문화요소나 통번역가의 윤리 등 보완적 인지요소를 우선적으로 교수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게다가 이는 학부에서 통번역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학부에서 통번역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학부의 내용을 한 번 더 듣는 것이 될 것이며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는 너무 기초적인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학부에서는 통번역의 기초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며 학생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학습한다.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과정에서는 통번역학부가 아니었던 학생들에게 통번역 ‘기본 소양’을 교수하며 통번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번역과 번역에 대한 연구는 학부와 평생교육원의 학생들이 통번역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진학한 통번역대학원에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체계의 경우에서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과정은 평생교육의 이념에 맞게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평생교육원과 학부, 통번역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통번역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분화를 하고 평생교육원의 정의를 확고하게 내려야 되며 이에 준수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됨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의 본질을 상기시키고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

과정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원의 통번역교육에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발전시키면 다른 기준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 되는 평생교육 통번역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거나 평생교육원 통번역 과정과 통번역대학원에 대비하게 하는 실무번역 입문 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과 인간의 발전을 목표로 학교의 정규교육 외에 학교,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커리큘럼, 수업 내용에는 접근하지 못한 점, 본 저자에게 친숙한 언어인 영어 통번역대학원에 치중된 점, 시간적-물질적 한계로 평생교육 통번역과정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그리고 학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특히 영어영문학 학사학위과정에 관련된 논의사항들, 그리고 다른 평생교육원에서 행해질 수 있는 통번역 강의계획안과 평가 기준 제작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길 것이다.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욕망으로 다시금 학문의 길로 뛰어들고 있으며 그 안에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 이상의 원초적인 학문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열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기존에는 학교 명의를 수료증, 자격증을 발부하며 막대한 학교 수입의 원천으로 자리잡았지만 평생교육은 기존의 평등과 성장의 길을 잃고 수익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통해 교육에서의 더 확실한 위치를 수립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평생교육원이 비행식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학문적인 강의, 교양 강의, 취업을 위한 강의 등의 모든 역할을 균등하게 모든 연령대에 제공할 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 M.I.T. Press.
- Dewey, John. (1938). *Experience &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Kelly, D.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Manchester: St. Jerome.
- Paul, L. (1980). *平生教育*.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PATCE. (2000). Acquiring translation competence: Hypothese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a research project. In A Beedy, D. Ensinger & M Presas (Eds.). *Investigating translation*(96-106). Amsterdam: John Benjamins.
- Saussure, F. (2008).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de Saussure* (Kim, H. Trans.). Seoul: Zmanz.
- Kim, R. (2002). Translation Teaching at University Level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人文科學研究* 8: 91-113.
- Kim, R. (2011). The Present and Future of Undergraduate-Level Translation Educ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3(2): 19-52.
- Kim, S. (1966). *The Reality of Foreign Country's Lifelong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Centr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 Kim, J., Hwang, J., Kim, S., and Han, S. (2009). *Basic Lifelong Education*. Paju: Kyoyookbook.
- Kim, J., Kang, S., Kim Y., and Park, H. (2014).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T & I Education-Korea's T & I Education and Its Effects. *Journal of the Interpretation & Translation Institute* 18(3): 315-340.
- Kim, J. et el. (2012). Academic conceptu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y exploring separately historical facts and viewpoints related with the two concep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2): 49-79.
- Kim, H. (2015). Proposi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based on Abduction, Deduction, Induction for Training Translators under the Language-based Approach Circumstanc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55: 153-182.
- Lee, H. (2012). A Practical Proposal on Undergraduate Courses of Introduction t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Journal of the Interpretation & Translation Institute* 16(2): 179-198.
- Lee, H. (2016). L'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au niveau universitaire: enjeux et propositions. *Societe Coreenne d'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55: 117-136.
- Park, K. (2007). *The Basic Research for Constructing National Translation System*. Seoul: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Park, S. (2013). Proposition pour l'amélioration de l'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dans les départements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la traduction pragmatique comme outil d'enseignement culturel. *Societe Coreenne d'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77: 7-36.
- Park, S. (2016). Construire un cours de traduction pragmatique en premier cycle à l'aide d'une grille d'évaluation. *Societe Coreenne d'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55: 87-115.

- Song, Y. (2016). A survey of translator trainers on teaching practices in graduate-level classroom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8(2): 47-71.
- Jo, H. (2017). Necessity and Teaching Method of English Grammar Education in Lifelong Education. M.A. Thesis, Korea University.
- Cha, G. (2012). Lifelong Education. Paju: Kyoyookbook.
- Choi, G. (2011). *Effects of an Image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on Adult learner's Intention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M.A. Thesis, Daegu University.
- Han, S. (2004). *Lifelong Education*. Seoul: Hakjisa.

This paper was received on 17 February 2017; received in revised form on 15 May 2017; and accepted on 20 May 2017

Author's email address

xx9996@korea.ac.kr, khyoub@korea.ac.kr

About the author

Hohyeuk Won is currently enrolled in Master's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in Department of Applied Linguistics and Culture Studies of Korea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sound recognition, corpus linguistics, machine translation, etc.), phonology, syntax, and cognitive science.

Hyoungyub Kim (corresponding author) is Professor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Department of Humanities Building of Korea University. His works have been published in various areas: phonetics & phonology, morphology, syntax, and translation studies. He had worked as the president of The 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 and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www.kci.go.kr